

## 4월 3일(월) SBS 뉴스 앵커진 개편! 뉴스에 새로운 바람 일으킨다!

4월 3일(월), SBS가 '새 얼굴, 새 변화'를 내걸고 뉴스 프로그램의 앵커진을 새롭게 개편했다. <SBS 8 뉴스>, <모닝와이드>, <뉴스브리핑>, <오뉴스> 등 모든 시간대에서 새로운 얼굴들이 시청자들을 만난다.

이번 개편은 '뉴스의 더 젊어진 이미지'와 '여성 앵커의 역할 확대'가 특징이다.

평일 <SBS 8 뉴스>는 김가현 아나운서가 김현우 앵커와 함께한다. 2021년 8월 경력직으로 입사한 김가현 아나운서는 1년 7개월여 만에 SBS 뉴스의 얼굴을 대표하는 중책을 맡았다. 김가현 아나운서는 "이른 나이에 뉴스를 맡게 돼 부담감도 있지만 그만큼 강한 책임감을 느낀다.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과 정성을 다하겠다.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뉴스에 저의 시각을 담아 전달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주말 <SBS 8 뉴스>는 정유미 기자가 단독으로 진행한다. 여성 앵커가 SBS 메인 뉴스를 단독으로 진행한 건 1995년 <뉴스 2000> 이지현 앵커 이후 28년 만이다. 취재 경력 18년 차인 정유미 앵커는 주말 <SBS 8 뉴스> 앵커로 활동했던 박현석 기자와 '최초의 부부 앵커' 타이틀도 갖게 되었다.

평일 <모닝와이드>는 정윤식, 주시은 앵커가 맡아 시청자의 아침을 깨운다. 2년 넘게 주말 <SBS 8 뉴스>를 진행하며 시청자의 사랑을 받아온 주시은 앵커는 물론이고, 기자 경력 12년 차 정윤식 앵커도 주말 <모닝와이드>의 앵커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진행을 보이고 있다. 정윤식, 주시은 앵커는 "시청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뉴스를 전해드리기 위

해 노력하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편, 정윤식 기자가 떠난 주말 <모닝와이드> 앵커 자리는 김민준 기자가 맡아, 신정은 앵커와 함께 젊음과 개성으로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뉴스브리핑>은 편상욱 앵커가 맡았다. 편상욱 앵커는 주말 <SBS 8 뉴스>, <나이트라인>, <오뉴스> 등 기자 출신 전문 진행자로 활동해온 만큼, 안정감과 노련한 진행을 담보한다. 편상욱 앵커는 "지금껏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정확하고 빠른 정보, 공정하면서도 풍부한 논평으로 시청자들에게 올바른 판단의 준거를 제공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오뉴스>는 베테랑 고희경 기자가 10년 만에 앵커로 복귀했다. 1991년 공채 1기로 입사하여 현재 최고참 여기자인 고희경 앵커는 SBS 최초 <나이트라인> 여성 진행자(2007년), SBS 최초 시사프로그램(<토론공감>) 여성 진행자(2013년) 타이틀을 갖고 있다. 고희경 앵커는 "이번엔 SBS의 여성 최고령 앵커라는 타이틀이 붙었다. 후배들이 많이 축하해주는 데 후배들에게 또 다른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앵커가 편안한 마음으로 진행해야 보는 사람도 편하다. 다른 일을 하다가 슬쩍 봐도 귀에 쏙쏙 꽂히는 <오뉴스>를 만들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SBS 8 뉴스> 내 스포츠뉴스는 김다영 아나운서가 맡았다. 평소 마라톤을 즐기고 요가 국제 자격증도 취득한 만능 스포츠우먼 김다영 아나운서는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 직접 축구 경기를 뛰면서 느꼈던 스포츠에 대한 설렘과 열정으로, 생동감 있는 스포츠뉴스를 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현우

<SBS 8 뉴스>

김가현

주말 <SBS 8 뉴스> 정유미

스포츠뉴스 김다영



<뉴스브리핑> 편상욱

<오뉴스> 고희경

정윤식

<모닝와이드> 1, 2부

주시은



## “재충전하고 돌아오겠습니다”

- 아나운서팀 최혜림



명확한 발음과 궁극의 전달력으로 <SBS 8 뉴스>를 진행해 온 최혜림 아나운서가 3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앵커석을 떠났다. 마지막 방송을 일주일 앞둔 날, 그녀를 만났다. 화면에서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냉미녀의 모습을 보여주던 그녀는 두 번째 질문부터 울컥하더니 아버지 이야기에서 끝내 붉은 눈물을 떨어뜨렸다.

### 지금 심경은?

기분이 좀 이상하다. 만 6년 4개월, 주말 <8 뉴스>까지 치면 9년여의 세월이다. 실감이 안 난다. 일단, 마지막 날까지 뉴스에 집중하려고 한다.

### 본인이 내려놓고 싶어 했다고 들었다.

과분하고 감사한 자리였지만 많이 버겁기도 했다.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스스로 고갈돼 가는 게 느껴졌다. 알고 싶지 않은 참사나 아동학대 같은 뉴스도 계속 팔로하고, 전해야 하는 게 무더져서 않고 매번 힘들었다. 저 자신이 팽팽히 당겨진 고무줄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서 항상 뉴스와 함께해야 하는 게 쉽지는 않았다.

### 가족들은 어땠나?

가족들도 <8 뉴스>에 스케줄이 맞춰져 있다시피 했다. 명절이라고 뉴스가 없는 게 아니고, 스포츠 중계로 뉴스가 늦게

시작하는 날엔 진행하다 자정을 넘긴 적도 있다. <8 뉴스>를 시작할 때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새 큰애는 제 턱 밑까지 컸다. 어렸을 땐 “엄마, 집에 있으면 안 돼?”라고 했는데, 이제 그만둔다고 말하니 서운해 한다.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도 지지를 많이 해줬던 것 같다.

### 뉴스를 하며 얻게 된 것은?

시야가 넓어졌고, 함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다. 사안마다 여러 방향에서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사를 생산하는 동료들과 시청자 사이에서 더 와 닿는 접점을 찾는 데 힘쓰면서 더욱 더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을 느꼈다. 뉴스가 어렵고 내 삶과는 동떨어져 보일 때가 많지만, 동료들과 함께 시청자에게 가까이 가기 위한 노력을 해나갈 때 좋은 결과가 나왔다. 쉽고 친절하게 전하고 싶었고, 거기에 가능한 한 온기를 담고 싶었다.

### 기억나는 뉴스는?

현장에서 진행했던 게 기억에 남는다. 평창올림픽 현장에 머물면서 뉴스 했던 거, 광복절에 용산역 한복판 강제징용 노동자상 앞에서 태극기를 꽂아놓고 뉴스 했던 거, 대통령 취임식 때 현장 진행했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주말 <8 뉴스>를 할 때는 프란체스코 교황이 방한했는데, 제가 신자라서 명동성당 미사에 초대받았다. 보도국에서 리포트 하자고 하셔서, 성

당 밖에서 스탠딩 한 뒤에 들어가 미사를 드린 일도 있었다. 둘째가 뱃속에 있을 때다. 세월호도 잊지 못한다. 미수습자 가족들이 추가 수색을 포기하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뉴스를 전할 땐 같이 목이 메었다.

### 제작년에 고비가 있었다고 들었다.

그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투병 생활을 하실 때 주말마다 대전 친정에 내려가서 아버지를 뵈다.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느끼고 뉴스를 계속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회사에 말씀드렸다. 의식과 무의식을 오가던 아버지께도 말씀드렸는데, 뉴스를 계속하는 걸 보고 싶다고 하셨다. 그것 때문에 버틴 것 같다.

### 앞으로 계획은?

미국으로 1년 연수 간다. 그동안 소홀했던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저 자신을 채우는 시간으로 감사히 쓰겠다. 건강하게 다녀와서 또 열심히 달리겠다.

### 부서탐방



## SBS 미디어그룹의 IT 정보를 책임진다.

- 경영본부 ERP팀

ERP팀은 목동 사옥 2층에 있다. ‘ERP’가 무엇의 약자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Enterprise Resource Plan’ (전사적 자원관리)의 약자라고 설명해 드리면 곧바로 돌아오는 질문은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는 것이다. ERP팀에 대한 이해는 약자 풀이를 통한 이해보다 하는 일에 대한 이해를 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듯하다. ERP팀은 과거 정보시스템팀으로 불리며 SBS IT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SBS 미디어그룹의 출범과 확장에 따라 그룹 전체의 모든 자원을 관리하는 전사적 관리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구축하고 총괄하는 부서인 ERP팀으로 진화하게 되었다. ERP팀은 모든 직원들의 사무용 IT 장비와 네트워크, 그리고 오

피스용 소프트웨어 관리는 물론 보도정보 시스템, 선거방송 시스템 그리고 모든 그룹사가 사용 중인 통합 정보시스템(WISE)을 자체 개발하여 관리하고 있다. 특히 WISE 시스템은 메일, 기안과 같은 그룹웨어 시스템과 재무, 구매, 자산 등의 경영정보 시스템 그리고 편성, 제작, 광고 등의 방송정보 시스템을 통해 SBS 미디어그룹의 모든 전사적 자원을 총망라하고 있다. ERP팀이 컴퓨터 시스템을 다루는 부서이다 보니 당연히 공대 출신, 이과 출신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러니 칙칙한 공대 분위기, 아니면 엄격한 군대 모드일 것이라는 오해를 가지기 쉽다. 하지만 팀원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감성 풍부하고 활기차며 화기애애하다고, 무미건조할 것이라

는 편견은 버려 주시면 고맙겠다고.

ERP팀의 목표는 그룹사 모든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직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모든 정보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항상 빠르게 변하는 IT 트렌드를 적용하기 위해 꾸준히 조사와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그룹사 동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이고 수월하게 업무에 임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사소한 의견이라도 알려주신다면 ERP팀은 최선을 다해 개발해드릴 것을 약속한다. 편안한 마음으로 연락해 주시고 문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훈

정일영

남이찬

최윤창

문재욱

김두식

조은정

김유연

이상만

이영섭

박영희 팀장

이상병



## “‘SBS’ 하면 떠오르는 앵커 되고 싶다”

- 주말 <SBS 8 뉴스> 앵커 정유미(D뉴스플랫폼부)



### 자기소개를 부탁한다.

정치외교학을 전공했고 대학방송사 기자로 활동했다.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거창한 꿈은 없었지만, 적성에 맞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자를 지원했다. 2006년 10월에 입사해서 사회부, 국제부, 정치부(국회/청와대 출입, 통일외교팀), 편집부 등을 돌았다. 미국에 연수 갔다가 작년 여름에 돌아왔고, 지난달까지 정치부에서 민주당 출입 반장을 했다. 동기인 박현석 기자와 스물일곱에 결혼해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아이들이 있다.

### 4월 8일부터 주말 <8 뉴스>를 맡는다. 남편 반응은?

남편도 주말 <8 뉴스> 앵커 1년, <모닝와이드> 앵커도 3년 가까이 했다. 남편이 주말 앵커를 했을 때 혼자 야기띠 메고 유모차 끌면서 수족관에 간 적도 있고 독박 육아에 스트레스가 쌓여 “당신은 빛이라도 나지, 나는 이게 뭐냐”며 싸운 적도 있다. 이번에 오디션에서 발탁됐다고 하니 남편이 “그때 했던 말 기억나지?” 하더라. 그러면서도 힘 빼고 하라고 조언해줬다.

### 최초의 부부 앵커다. 남편은 외모를 봤나?

맞다. 남편이 결혼 전엔 살이 많이 찌서 남들은 몰라봤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다이어트를 하면서 외모가 살아나자 다들 외모로 고른 것을 인정해주었다. 입사 동기끼리 서로 연애 상담도 해주면서 친하게 지냈다. 다른 직업의 남자와 소개팅을 많이 했는데, 기자 생활을 이해하지 못하니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박 기자가 제게 밥 살 일이 있어 처음으로 단둘이 시간을 보낸 후 비밀 연애를 시작했다.

### 진행 경험 없이 단독 진행을 하게 됐다. 오디션을 잘 봤나?

그전에도 앵커 선발 오디션을 두 번 봤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것 같다. 앵커가 되고 싶은 속마음을 들리기 싫었다. “앵커하려고 기자 됐다” 하는 시선도 싫었고 저 역시 그런 편견이 있었다. 그렇게 두 번 떨어지고 이번이 내 생애 마지막 오디션이라고 생각했다. 최고참 참가자인데 못한다는 소리는 듣기 싫었다. 잘 보진 않았는데 마흔이 되니 때가 됐다 보다.

### SBS로서는 28년 만에 여성 앵커 단독 진행이라고 한다.

많이 늦었다. 타 방송사에서는 이미 오래 된 일이다. 그러니 지금은 ‘여성 단독’을 내세우는 시대는 아닌 것 같다. 앵커 요원의 한 명으로 앵커 선배들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외향적 성격인 데다 표정에서 다 드러나는 스타일이라 이런저런 타이틀에 부담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진행하려고 한다.

### 정치부를 오래 했다.

2019년 말까지 청와대 출입 기자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등 큰 뉴스를 땀땀 터트리던 시절이라 일이 쏟아졌다. 아이들에게는 빵점이었으나 기자로서는 전성기였다. 작년 말 다시 정치부로 돌아와 민주당 출입 반장을 맡았다. 내년 총선에 각 당이 사활을 걸고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다. 아이들에게 “엄마가 옛날에 바빴던 거 기억나지? 다시 한번 바빠질 것 같아”라고 미리 말해두었는데 뜻밖에 앵커가 되었다.

### 어떤 뉴스를 할 것인가?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국민의 힘은 국민의 힘대로 서운해 하는 게 우리 뉴스다. 지금 우리 뉴스에 정치적 판단은 있을 수 없다. 8뉴스부에도 꽤 오래 있었는데 우리 뉴스는 편이 없는 뉴스, 이쪽저쪽 다 혼내는 뉴스이고, 이편도 저편도 아니니 시청자들이 우리 편이 돼줘야 한다는 게 모토였다. 전임 선배들처럼 시청자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뉴스를 이어가겠다. ‘SBS’ 하면 떠오르는 앵커가 되고 싶다.



## “제2의 ‘문명특급’ 꿈꾼다”

- SBS디지털뉴스랩 작전콘텐츠2팀 박경흠, 성하진

SBS디지털뉴스랩에서 운영하는 IT 제품 소개 채널 ‘오목교 전자상가’가 구독자 1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대중적인 인기를 얻기 힘든 IT 분야에서 구독자 10만은 큰 의미가 있다. 기획, 연출, 진행을 하는 박경흠 대리(비트)와 성하진 PD(구피)를 만나봤다.

### 자기소개를 부탁한다.

**비트:** PD나 기자를 꿈꾸던 신문방송학도였다. 다양한 카메라와 영상편집 장비 등을 접하면서 IT 기기에 관심을 갖게 됐다. **구피:** 저도 신문방송학을 전공했다. 졸업 후 IT 쪽에 관심이 생겨서 프로그래밍을 배웠고 웹 디자이너로 2년여 일했다. IT와 대학 때 배운 콘텐츠 제작을 융합해보고 싶어서 디뉴스랩에 지원했다.

### 문과 출신 두 명이 IT 관련 채널을 하는 게 의외다.

**비트:** 입사 면접 때 뉴미디어 채널에서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그 준비는 얼마나 되어 있는지 물어보셨다. 지금 IT 제품이나 기술을 소개하는 콘텐츠들은 대체로 이과 출신들이 만드는데, 문과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교양 콘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대답했다. 입사 후 스프스뉴스에서 일하면서 어떻게 하면 시청자에게 완성도 있는 영상을 구축해서 보여줄 수 있는지 노하우를 배웠다. 1~2년 그렇게 일하다가 면접 때 냈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시리즈를 만들어 보라는 권유를 받았고, 스프스뉴스 안의 코너로 시작했다가 인기를 얻어 2년 전 독립했다.

**구피:** 작년 7월에 입사하여 스프스뉴스에서 시나 소프트웨어

관련 영상을 많이 다뤘다. 자연스럽게 비트와 소통하는 일도 잦아졌고, 올 초 ‘오목교 전자상가’에 합류하게 됐다.

### 조회 수가 높은 아이템들은 어떤 게 있나?

최근 출시된 갤럭시 S23 스마트폰 리뷰가 화제를 모았다. 다른 유튜브들은 “카메라가 좋아요”, “화소 수가 얼마예요” 등의 리뷰에 그쳤는데, 시청자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갤럭시 S23의 가장 큰 장점은 백배율 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기능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건 북한 지역을 찍어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통일전망대에서 북한을 찍으니 보이더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우리 영상을 퍼가면서 널리 퍼졌다. 삼성은 자사 기기를 특정 인기 인플루언서에 게만 대여해주는데 홍보실에서 계속 연락이 오고 있다. 현궁 미사일을 다룬 것도 조회 수가 높았다. 우리나라 자체 기술로 개발한 대전차 미사일인데 우크라이나가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여 관심이 높아졌다. **현궁 미사일에 대해 알아본 콘텐츠** 역시 화제를 모았다. 북한 지역을 찍는 것, 현궁 미사일 공장 내부를 찍는 것 모두 사전에 정부기관 등에 문의하고 허가를 받았는데, 이런 건 개인 유튜브들은 하기 어려운 일이다. ‘오목교 전자상가’는 지상파방송사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IT 소개 채널로서 앞으로도 이 점을 잘 활용해서 우리만의 아이템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

### 공정한 리뷰가 관건인 것 같다.

물론이다. 지금은 S23에 대한 리뷰로 삼성전자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듣고 있지만, **S22의 GOS(Game Optimizing**



성하진

박경흠

**Service/게임 최적화 서비스** 문제점에 대한 리뷰가 특히 업계에서 큰 반향이 있었다. S22는 평상시엔 속도가 빠르는데, 게임을 하면 속도가 떨어진다. 기기 과열을 막으려고 넣은 장치가 강제로 속도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삼성전자에서 인이하게 대처한 게 그대로 인터뷰 영상에 나가면서 난리가 났다. **휴대폰 성능을 테스트하는 업체(벤치마크) 쪽에서 해당 기기의 테스트 결과를 무효화**했고, S22 관련 문제는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도 지적이 나왔을 정도다. 이때부터 우리 채널의 인지도가 확 올라갔다.

### 앞으로 계획은?

AI 기술을 도입해서 새로운 뉴미디어 콘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한다. AI와 함께 실시간, 쌍방향 소통으로 진행하면 시청자들이 24시간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 제2의 ‘문명특급’을 꿈꾸나?

‘문특’은 언제나 좋은 직장 동료이자 워너비다. 목표는 같다. 더 많은 구독자와 시청자, 조회 수를 올리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에게 전문성을, 시청자에게 기획력을 인정받는 영상을 제작하겠다. “오목교 전자상가”가 다르면 다르다, “오목교 전자상가”에서만 다룰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싶다.

SBS 미디어넷

## SBS Golf 2 개국 - 'KPGA 투어' 중심 편성



국내 남자 프로 골프대회 KPGA 투어 방송권을 확보한 'SBS 골프'가 신규 골프 전문 채널 'SBS골프 2'를 4월 1일(토) 개국했다.

'SBS골프 2'는 KPGA 중심 채널로 운영되며 1부 투어인 코리안 투어를 매 라운드 5시간 이상씩 생중계 방송하는 것을 비롯해, 2부 투어인 스릭슨 투어와 시니어 투어인 챔피언스 투어 모든 대회를 제작 방송한다. 오는 4월 13일(목)부터 나흘간 열리는 2023 KPGA 코리안 투어는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을 시작으로 8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와 함께 세계 최고의 골프대회인 '2023 마스터스'를 개국 첫 주에 'SBS 골프' 채널과 동시에 위성 생중계하고, 6월에는 US오픈, 7월에는 US여자 오픈 역시 생중계한다.

기존 'SBS골프' 채널은 여자 프로 골프 투어인 'KLPGA'를 중심으로 편성하고, 'SBS골프 2'는 남자 프로골프 투어인 'KPGA 투어'를 중심으로 편성해, 골프팬들의 선호도에 맞춰 채널의 특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 배재학, 하승보, 고한봉 안식년

보도국 보도제작팀 배재학 부국장, 8뉴스부 하승보 부국장, 기술국 네트워크기술팀 고한봉 차장이 5월 안식년을 맞이한다.



배재학 부국장은 1995년 경력기자로 SBS 보도국에 입사한 뒤 딱딱한 뉴스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며 SBS 대표 앵커로 활약했다. <나이트라인>, <뉴스브리핑>, <뉴스퍼레이드> 등 다양한 뉴스 프로그램을 오랜 기간 진행했고, 파리특파원으로 활동하며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유럽의 생생한 뉴스를 전달했다. 한국 가톨릭매스컴 대상, 여성가족부 남녀평등상, 바른말 보도상 등을 수상하며 SBS 보도국의 위상을 높였다.



하승보 부국장은 1991년 공채 1기로 입사하여 <멋진 만남>, <맛 대 맛>, <솔로몬의 선택>, <일요일이 좋다> 등의 프로그램을 연출하고 예능국장을 역임했다. 이후 편성, 인사, 윤리경영, 글로벌제작, 보도 등 주요 부서에서 SBS 프로그램의 경쟁력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TV 개국에 참여한 것과 중국과 베트남 <런닝맨> 제작, <8 뉴스> 스튜디오와 비주얼 혁신, 선거방송과 SDF 연출 등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는 하승보 부국장은 지금까지 매 순간마다 함께해준 동료들에게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



고한봉 차장은 1992년 방송 장비 구매 및 관리업무로 근무를 시작하여 통합주조정실 기술감독을 거쳐 통합관제실 기술감독으로 일했다. 고한봉 차장은 30년간 장비 관리 업무와 송출 관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안정적인 프로그램 송출에 기여했다. 퇴직 후에는 환경운동가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

SBS M&amp;C

## 지속 가능한 시즌제 드라마의 시대가 열린다

- SBS M&amp;C 네트워크팀 김진만 프로



올 초 2023년 SBS 드라마 라인업이 공개되자 뜨거운 관심이 몰렸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모범택시 2>와 <낭만닥터 김사부 3>, <소방서 옆 경찰서 2> 등 시즌제 드라마의 약진이다. 그만큼 SBS의 시즌제 드라마 제작이 정착되었고 본격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등장한 우리나라의 초창기 시즌제 드라마는 '미드'와 달리 출연자와 제작진 대다수가 교체되고 콘셉트나 세계관 정도만 공유하는 식으로 전작을 불완전하게 계승하는 경우가 많았다. 캐릭터나 스토리의 연속성보다 콘텐츠 IP의 보장된 흥행 가능성에 의존했던 시즌제 드라마는 전작이 거두었던 흥행과 호평에 미치지 못한 채 조용히 막을 내리곤 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행착오를 딛고 지금의 시즌제 드라마는 SBS를

선두로 지상파 방송에서도 지속 가능한 기반을 충분히 확보하여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시즌제 드라마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은 캐릭터와 스토리의 연속성, 세계관의 연계성이다. 주인공을 포함한 전 시즌의 등장인물 대부분이 출연을 이어나가며, 그들이 앞서 구축한 공동체와 세계관 또한 유지된다. 이러한 기초 속에서 후속 시즌을 내놓은 <모범택시>와 <낭만닥터 김사부> 시리즈는, 캐릭터와 배경을 유지하고 지속할 때 세계관이 운용됨은 물론 확장되기까지 하고, 스토리도 발맞춰 뻗어나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방송사가 시즌제 드라마를 선호하게 된 이유는 첫째, 검증된 흥행성이다. 장르물이 많아지고 그만큼 콘텐츠의 잠재 수명 또한 늘어나는 요즘, 인기 드라마는 자연히 시청자들의 '시즌 2' 수요

를 높이고, 이에 화답하여 나오는 '시즌 2'는 당연히 안정된 흥행을 보장한다. 시청률 역시 언제 본계도에 오를지 모를 빌드업 과정을 건너뛰고 초반부터 고공행진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보다 유연해진 편성 트렌드를 통해 콘텐츠의 생명력을 길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 또한 시즌제 드라마를 각광받게 했다. 16부작 또는 50부작으로 대부분의 드라마 편성이 정형화되었던 과거와 달리, 현재의 드라마 편성은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8부작, 10부작, 12부작 등 그 형태가 다양해졌다. 이런 흐름 속에서 장편으로 흘러갈 수 있는 드라마가 시즌제로 호흡을 나누어 편성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즌제 편성은 보다 긴 시간을 두고 화제성을 지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휴지기 동안 완성도를 제고하기도 용이하다.

OTT 플랫폼의 가세로 국내 시청자들도 이제 시즌제 드라마가 익숙해졌고, 안정된 제작 환경에 힘입어 대형 배우들의 참여 사례가 늘어나면서 시즌제 드라마는 더욱 활발하게 제작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드라마 라인업에 시즌제 드라마만 3편을 포진시킨 SBS는 지상파 방송사 중에서도 시즌제 드라마 제작에 가장 적극적으로 뛰어든다는 만큼, 드라마 트렌드의 한 축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믿고 보는 한국형 시즌제 드라마로 방송사와 시청자 모두가 만족하는 한국 드라마의 활기찬 세계절을 기대해 본다.